



절친한 친구였던 청담 스님을 굶은 선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박생광 화백의 '열반의 청담 대종사'.

숨 멎을 듯한 원색의 美

박생광 화백 탄생 1백주년 회고전 풍성

"예술가란 죽은 뒤가 아니고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이리라." (작곡가 드뷔시)

현대 들어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음악가와 미술가, 작가 등 예술가들에게서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낸다면 살아생전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게르니카의 피카소, 절규의 '몽크', 자화상의 '샤갈' 등 미술가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올해로 탄생 1백주년을 맞은 내고(乃古) 박생광 화백(1904~1985) 역시 75세를 넘어서까지도 화단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오히려 '외색풍'이란 혹평속에서 화단의 주변민을 맴도는 불우한 화가였다. 그러다 죽기 7년전인 78세가 돼서야 겨우 백상기념관 개인전(1981),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인전(1984), 사후 호암 미술관 유작전(1985) 등 단 세 번의 전시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긋기 시작했다. 이유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한 근대 채색화의 대가란 것이었다. 생전에 이런 평가가 내려졌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의 탄생 1백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는 갔어도 그가 남긴 작품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늦게나마 갤러리현대(9월 8~24일)와 경기도 용인 이영미술관(9월 17일~10월 31일)에서 그를 기리는 대규모 회고전이 잇달아 열린다.

갤러리현대에는 미술평론가 이구열 씨와 박 화백의 막내아들 박정 씨 등이 중심이 된 박생광기념사업회와 함께 회고전을 마련한다. 80년대 그의 대표 수묵채색화 50여점과 인도 성지순례에서 그린 스케치 30여점, 편지와 회화 등 유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중 원호대사, 이순신, 전봉준, 명성황후 등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화 시리즈와 토속적이고 민족성을 찾아낸 단청 기법의 '무속'과 '불교시리즈'는 눈여겨 볼만하다. 또 박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4일전까지 그랬다는 미완성작 '피리부는 노인'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약기를 부는 노인의 슬픈 모습이 담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전해준다. (02)734-6111

이영미술관의 '박생광 탄생 100주년 기념전'은 박 화백이 45년 해방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해 경남 진주에서 살던 1960년대까지 연대순으로 작품을 일목요연하게 벽에 걸었다. 독창적 세계가 짙은 '무녀' '토함산 일출' '무위사의 관음' '시왕도' 그리고 말년에 주로 그린 '녹두장군' '명성황후'와 같은 역사인물화를 합쳐 1백여점이 전시된다. 그리고 그 자체로 작

강렬한 오방색에 한국美 추구 사후 근대 채색화 대가로 인정 청담 대종사 등 미공개 10점 전시

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케치 40여점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박 화백과 진주농고 동창이자 절친한 죽마고우였던 청담 스님을 그린 '청담 스님 영정' (이영미술관 소장)과 '청담 스님' (도선사 암자인 현성정사 소장) 등 미공개 작품 10여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031)213-8223

한편 부산광역시립미술관(051-744-2604)도 '동양의 샤갈'이란 주제로 박생광 회고전을 11월부터 연말까지 개최한다. 이외에도 진주 경남도립미술관(055-211-0333)에서는 9월 9일~11월 4일,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기념전이 열린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무위사의 관음'.



'십장생'.



'무속'.

■ 박생광 화백은?

190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박생광(사진 위) 화백은 진주 농고에 입학한 14세때 친구 이찬호(청담 스님)와 함께 진주 호국사에 입산한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하산해 진주농고 일본인 미술교사의 추천으로 1920년 일본 교토로 미술 유학을 떠난다. 이후 1924년 일본 '선전(鮮展)'의 동양화 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1929년 '명랑미술전' 입선 등을 통해 일본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45년 귀국 후 진주에 정착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시켰고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는 '동해일출도' '의랑순국도' 등 민족성이 짙은 작품들을 주로 그렸다. 1982년 79세의 나이로 인도 불교 성지순례 길로 오른 뒤부터 불교에 심취해 1985년 82세를 일기로 사망할때까지 '출가' '열반' 등 불교 작품과 역사 인물들을 많이 그렸다.

20년전 첫 유작전 기획 윤범모 교수

"불교미술 지향점 제시한 큰스승"

1985년 당시 호암미술관에서 박생광 유작전을 기획했던 윤범모 강원대 교수는 "한국적인 정서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박 화백의 작품은 20세기 국내의 화단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법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완전한 불교작품이 아니면서도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돼 있으며, 동시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박 화백의 작품들은 현대 불교미술이 나아가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평했다. 또 윤 교수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비좁은 단칸방에서 살았던 박 화백이 500~1000호 정도의 대형 작품들을 그림때마다 도화지를 맡아가며 조금씩 그려 나가게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윤 교수는 "박 화백은 특히 경주 남산을 좋아해 이를 화폭으로 옮기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지방이 약화돼 꿈을 실현시키기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대)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해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